



김원이 목포

주철현 여수

김회재 여수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

서동용 순천광양곡성구례

신정훈 나주·화순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 해남·완도·진도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정 발목잡기’, ‘막말’과 ‘이념 편가르기’

“분열과 구태정치 야당 심판하고 총선 승리 이루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후보 10인 출사표

“20대 국회 내내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 발목잡기’와 ‘막말’과 ‘이념 편가르기’의 구태정치로 일관해온 거대 야당을 심판하여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주시시오.”

26일부터 이틀 간 실시되는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21대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치열한 당내 경선 끝에 공천장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전남 10개 선거구 후보들은 출마의 변을 통해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개혁 완수와 경제위기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호남에서 큰 지지를 보내 달라”고 한결같이 호소했다.

재선에 나서는 서삼석 후보(도당 위원장, 영암·무안·신안)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검찰개혁과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발목잡기에 힘들었던 과정을 잊지 말아야 한

다”며 “도당위원장이로서 전남에서의 압승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3선에 도전하는 호남권선대위장 이개호 후보(담양·함평·영광·장성)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민들과 정부의 눈물겨운 사투에 격려를 드린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출발점인 호남에서의 압승을 통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후보(목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중차대한 시대정신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민주개혁 세력의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목포에서 마련하겠다”고 강한 승리 의지를 피력했다.

주철현 후보(여수)는 “여수전문가’ 주철현이 여수를 위해 다시 뛰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검찰·사법개혁의 완수, 공정사회,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민주당의 ‘필승카드’ 주철현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회재 후보(여수)는 “분열과 대립, 갈등과 반목의 싸움정치를 끝내고 민생정치, 서민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꾸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 검찰개혁의 최적임자인 김회재를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부탁했다.

소병철 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는 “지난 해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들불처럼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10년 여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순천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변화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는 각오를 밝혔다.

서동용 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는 “4·15총선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완성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과 행복을 도모할 섬세하고 리더십을 갖춘 서동용을 밀어달라”고 요청했다.

신정훈 후보(나주·화순)는 “이번 총선은 박근혜 세력을 청산하는 선거”로 규정짓고 “코로나19 사태로 혼란한 틈을 타 적폐세력들이 대동단결을 외치고 있다. 민주주의의 퇴행과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해 참회 없는 박근혜와 ‘도로 새누리당’을 확실하게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김승남 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농어촌에 관한 공익적 가치실현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 또,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서 바꿔 나가겠다”며 “농어촌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김승남에게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윤재갑 후보(해남·완도·진도)는 “거대 야당은 진정성 있는 대책보다는 개혁을 염원하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반대’와 ‘깎아내리기’로 발목만 잡아왔다”며 “준비되고 능력을 갖춘 일꾼 윤재갑이 민생개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 후보 프로필·핵심공약 5~14면

4·15총선 ‘대한민국 미래준비 전남도당선대위’ 발족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 서삼석·이개호·손금주·신정훈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위해 출범식 취소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은 24일 ‘대한민국 미래준비 전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이개호 호남권 선대위원장, 손금주 의원, 신정훈 후보(나주·화순)를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회의원, 이완식 전 도의회 의장이,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원이(목포) ▲김희재(여수)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해남·완도·진도) 후보와 ▲이용재 도의회 의장 ▲강필구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회장이 각각 임

명됐다. 또 수석부위원장은 김한중·이민준 도의회 부의장이 ▲총괄선대본부장 전경선 ▲총무본부장 최무경 ▲조직본부장 김성일 ▲정책본부장 조옥현 ▲홍보본부장 이혁제 도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도당은 이날 선대위 출범식을 통해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 선언에 이어 ‘도민과의 약속’(정책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인한 전 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출범식 행사를 취소했다. 한편 도당은 선대위 출범에 맞춰 ‘한전공대 설립지원 및 특별법 제정’과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 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등의 12개 정책공약자료집 책자를 발간했다.

전남도당,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총력 대응

총선 유권자 대면접촉 선거운동 전면 자제키로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위도 구성



전남도당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4·15총선 후보자들의 다중집합장소에서의 유권자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도의회 전경선 보건복지위원장(도당 수석상임부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스 확산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집권당의 도당위원장이자 총선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3월 말까지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 접촉 선거운동을 전면 자제하고 당원집회나 각종 행사도 연기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에 상당한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거운동 전면 자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지역민들도 손씻기와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당은 각 지역위 사무실에 체온측정계와 손 세정제 등을 지원했으며, 여성위원회 박현숙 여성위원장 등 여성 당원들이 지난 17일부터 시·군 순회 소독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전남도, 저소득 취약계층에 코로나19 극복 긴급 생활비 1,835억 지원

전남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취약 계층에 1,835억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280억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32만여 가구다. 전남도 내 총 87만 가구의 37%수준으로 일용 및 단기노동자, 영세소상공인,

농어민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두루 포함됐다.

이는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 44만 가구 가운데 기초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을 받은 12만 가구를 제외한 규모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 선이다. 1~2인 30만원, 3~4인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차등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한다.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

전남도당, 12개 사업 21대 총선 정책공약 채택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와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비롯한 12개 사업이 제21대 총선 전남도당 정책공약으로 채택됐다.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은 총선을 앞두고 국가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을 한전공대 설립과 연계해 유치하는 등 모두 12개 사업을 전남지역 총선 정책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중앙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한전공대 설립지원특별법 제정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차세대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여객선 공

영제 강화 및 1,000원 여객선 시행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관광·문화 분야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이 채택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국립 공공의료보건대학 등 의대 설립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을, 환경 및 기타 분야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 소멸지역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당은 이와 별개로 각 지역위원회에서 건의한 ▲장흥~고흥 간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연륙교 건립) ▲경전선 빛가람혁신도시역 및 능주역 신설 ▲친환경 하상주차장 건설(여수·목포) 등의 사업도 적극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 추경’ 11.7조 국회 통과... 대구·경북 2.4조 확대 지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1483억 증액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도 대폭 증액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1조7000억 원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5명 중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19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정부안과 같이 총 규모는 11조7000억 원으로 정해졌지만, 세입경정 조정 등으로 대구·경북 지원 추경이 1조 원 더 확대됐다.

여야는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 간 회동과 소위원회를 열어 세입경정 3조 2326억 원 중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등 경제 변수 수정으로 인해 배정했던 2조3894억 원을 삭감했다. 세입경정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것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 예산 1조394억 원을 증액했다.

또 지역경제활성화와 재해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책비 4000억 원, 피해 점포 회복지원 2262억 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 원,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 원, 긴급복지 6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이 늘었다.

기존 정부안의 6187억 원을 더하면 총 1조6581억 원이 대구·경북 지원 추경 예산으로 확정됐다. 이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대상 사업 중 대구·경북에 배정된 금액을 합하면 총 2조 4000억 규모가 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 1483억 원도 늘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규모는 1조1638억 원 증액됐다. 경영안정자금 8000억원, 초저금리 자금 추가공급 2547억 원, 소상공인 이자율 인하 소요 예산 604억 원 등이 대표적 증액사업이다.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7696억 원이 늘었다.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365억 원, 사립유치원 긴급지원 320억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2275억 원, 긴급복지 2000억 원, 방문학습지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 지원 1000억 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736억 원 등이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 없던 저비용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에 2400억 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18억 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서삼석 도당위원장,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긴급경영자금 300억 지원

서삼석 도당위원장(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은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경영회생자금 100억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17일 1차로 지원한 12억4000만원에 더해 187억6000만원을 추가로 지원,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안에 놓여진 지원대책이 미흡해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인하대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번 자금지원이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산물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가격급락, 출하물량 적체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보다 강력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모 31.6조원

코로나19 극복 추경 11.7조원

세출확대 8.5조원 + 세입경정 3.2조원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 | |
|--|---|
| <p>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의료인프라 구축 1백억원 -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음압병실 확충 등</p> <p>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긴급자금 지원 5천 1백억원 - 긴급 경영자금 용자, 특례보증 및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p> <p>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피해점포 회복 지원 1천억원 -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피해점포 정상화, 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온라인 판로지원 등</p> | <p>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4조원</p> <p>소상공인 - 긴급경영자금 용자 총 1.4조원 확대, 초저금리 대출 2조원 확대 - 80만개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장 근로자 약 230만명에 1인당 월 7만원 보조(4개월) - 온누리 상품권(모바일) 발행 5천억원 확대 및 1인당 구매안도 70 → 100만원으로 확대</p> <p>중소기업 - 긴급경영자금 용자 총 0.6조원 확대 - 신·기초 특례보증 2.3조원, 매출채권 보험공급 0.2조원 확대 -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 0.5조원 확대</p> |
| <p>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3조원</p> <p>의료기관 -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 3천 5백억원 * 추후 손실보상 확대 등 목적예비비 1.35조원 보강 -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용자자금 4천억원 지원 - 입원치료 음압병실 120개 확충 - 보건소에 음압구급차 146대 신규보급</p> <p>격려·확진자 - 가구원수 및 격리기간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 1인 월 최대 45.5만원 ~ 5인 이상 월 최대 145.8만원 - 사업주에 日 13만원 한도 내 유급휴가비 지원</p> | <p>민생·고용안정 3.0조원</p> <p>저소득층·취약계층 -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 지역사랑상품권 월 22만원(2인 가구 최대지원액) 지급(4개월분) -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4개월분) -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에 지역사랑상품권(월 5.9만원 추가, 총 14만원) 지급 * 공익활동형 참여자 보수 (월) 27만원 → (연) 현금 18.9 + 상품권 14.0 = 32.9만원</p> <p>아동양육 가정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가정 내 양육 전환에 맞춰 양육수당(월 10~20만원) 대상 확대</p> <p>일반 국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30만원 한도로 구매가격의 10% 환급(0.3조원)</p> |
| <p>지역경제·상권 살리기 0.8조원</p> <p>피해지역 - 지역특화사업 R&D 중소기업 50개사, 맞춤형 바우처 340개사 지원 - 대구·경북 등 피해지역에 고용유지·사업장 환경개선 등 1천억원 지원</p> <p>지역상인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조원 확대, 정부지원을 4% → 8% 상향조정(4개월)</p> <p>초·중·고등학교, 지자체 - 지방재정 보강, 학교 방역 소요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총 3천억원 앞당겨 정산</p> |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 padding: 5px;">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p> |

더불어민주당 스마트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APP)

소통, 투표, 교육, 내 정보 관리를 모두 여기서 해결한다!
정당도 멤버십처럼, 정당 최초 스마트 플랫폼 앱 오픈!

투표

교육

연결

멤버십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더불어민주당 을 검색해보세요!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것!

코로나전쟁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남 도 당

소득과 삶의 질 모두 높이는 '살고 싶은 농어촌' 공약 발표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의료인프라 지원 공익형직불제 조기 정착 및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5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농어업 부문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당정협의를' 갖고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전국 어디에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돌봄·교육·정주여건 등 농어촌 생활 여건 전반의 획기적 개선에 합의했다.

당정 협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서삼석 원내부대표(도당위원장),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 조성

당은 가장 먼저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특화검진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농어업인 전체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부족한 농어촌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어촌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을 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 법정기관 충족률을 비취약지 대비 90% 이상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2024년까지 45개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노인·장애인 돌봄 사회적 농장을 확대해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기로 했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완화를 위해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학과의 지

역인재 선발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한 행복버스와 100원 택시, 1000원 여객선, 호도택시,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등 다양한 농어촌형 교통모형을 확대한다.

공익형 직불제 조기정착 및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공익형직불제 조기정착도 핵심 공약이다. 공익형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체제를 조기 구축하고, 생태·환경·안전 등과 관련한 선택형 직불제 추가 도입도 검토한다.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 확대 및 농업재해 지원단가 상향 조정도 추진한다.

농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과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비과세 등 특례 연장,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확대,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인상, 농어업회의소 확대, 임업직불금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채소류 계약생산 물량을 30%까지 확대하고, 품목별 의무자조금제도 확대 및 유통혁신 생산자조직(한국형 PO)을 육성한다.

스마트팜 및 농식품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도 집중 육성한다.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대체식품 등 5대 유망식품분야 집중 육성 및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발농업 기계화를 80% 수준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우리 먹거리 공급

로컬푸드 공급 확대 방침 아래 농식품 바우처제도 확산, 초·중·고 대상 과일간식 및 임산부·산모 대상 친환경농산물공급 지원사업

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로컬 푸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배려 확대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을 45세 미만·영농경력 5년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5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운영,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어업기자재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가축 전염병 안심 및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

축산 분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생 차단 지원 강화, 철새도래지·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제도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스마트축산 ICT(정보통신기술)단지 조성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 공동자원화 시설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확대, 이익 공유 방식 가축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등을 약속했다.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업 부문 총선 공약

- 1. 다같이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농어촌형 교통모형 확대, 3·6·5 생활권 구축
- 2. 공익형직불제 조기 정착 및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 효율적 운영체계구축, 재해보험 확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확대
- 3. 농산물수급·가격안정대책 추진 및 농협 판매기능 강화**
- 채소 계약생산물량 단계적 확대, 도시 조합 판매사업 강화방안 마련
- 4. 체계적인 우리 먹거리 공급으로 국민 건강 뒷받침**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로컬푸드 공급확대, 농식품 바우처제도 등 확산
- 5. 농업의 스마트화, 농식품산업 육성으로 경제 신성장동력 창출**
- 스마트팜 R&D 확대, 5대유망식품분야 R&D·세제지원 확대
- 6. 가축전염병에서 안심할 수 있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
- 방역시설 강화 자금지원 확대, 스마트 축산 ICT단지 조성
- 7. 청년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어업인 배려 확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후계 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인하,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운영, 농어업인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 신안군 출생
- 목포제일중·목포마리아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졸업
-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전)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 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대위 직능본부부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 김원이

출마의 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목포가 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목포’를 위한 아름다운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과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어 든든하고 가슴 벅칩니다.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중차대한 시대정신을 한 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힘을 모아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성하고, 민주개혁세력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행동하는 양심’들이 모여 만들고 지켜온 정당입니다. 오늘의 더불어민주당이 있게 한 위대한 주인공은 바로 당원동지 여러분입니다. 저는 올곧이 민주당의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님께 정치를 배웠고,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김원이가 동지 여러분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목포를 만드는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저와 아름다운 경선을 펼쳤던 우기종, 배종호, 김한창 후보의 꿈도 더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원팀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의 약속

- 100년 역사 목포역을 시민광장으로
- 목포를 근대역사문화의 특구로
- 목포 신안을 세계 섬의 수도로
- 목포형 일자리 5천개, 전남형 일자리 2만개 창출
-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목포 선장경제 활성화
- 원도심, 중도심, 신도심이 고루 잘사는 균형도시 목포
- 명복 교육 보육 도시 육성
- 원하면 이루어지는 따뜻한 목포 복지
- 김원이가 시작하는 선명한 개혁 3대 입법
- 목포 시민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유달정담’ 개최





-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장
-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특별위원
- 전) 제6대 여수시장
- 전) 법무법인 태원 고문변호사
-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
-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검찰기획관
- 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장검사
-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
- 전) 대검찰청 공안2과장, 연구관
- 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 주철현

출마의 변

“선택은, ‘여수 전문가’ 주철현입니다”

‘여수전문가’ 주철현 전 여수시장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저에게 30년 법무부·검찰 생활은 도전의 나날이였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는 대검찰청에서 공정선거 파수꾼 역할을 해 뿌듯했습니다.

2013년 대형 로펌과 전관예우를 뿌리치고, 고향여수로 돌아왔습니다.

2014년 시민들께서는 저에게 ‘시민대표 시장’을 맡겨주셨습니다.

시장 4년 동안 ‘미항 여수’를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 도시’로 성장시켰습니다. 골목골목을 쫓아 다녔고, 그 결과 ‘낭만 여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7년 대선 때 현직 시장이지만 당 여수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득표율 65%로 전국 3위를 기록하며 문재인정부 출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와 여수 갑 지역위원장에 임명돼, 상인들을 만나고, 어민들과 부대끼고, 청년들과 웃으며 시민과 나란히 여수를 보며, 새롭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수전문가’ 주철현이 여수를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

‘시민대표’ 주철현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뛰겠습니다.

검찰·사법개혁, 공정사회,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여수 시민대표로 뛰겠습니다.

‘여수 전문가’ 주철현을 지지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확실한 필승카드, 주철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시민이 승리하고, 민주당이 이기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합니다.

시민과의 약속

- 전국 최초 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여수 유치
 - 해양관광도시로서 제2의 도약 발판 마련
 - 국제 해양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양관광 메카 위상 제고
- 여수항, 해상물류 동북아 거점항 육성
 - 여수의 롤 모델로 세계 3대 ‘오일 허브’ 싱가포르 벤치마킹
 - 국토부 해사안전법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제
 - 해상 환적 허브(Hub) 향으로 지정 추진
- 연등천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기반 마련



- 연세대 법대 81학번, 한국방송통신대학 중어중문과
- 사법시험 30회, 사법연수원 20기
-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전) 현 법무법인 정의와사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정의와사랑 대표변호사
-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전) 현 법무법인 정의와사랑 대표변호사



1 김회재

출마의 변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영원한 여수 촌놈, 믿음직한 큰 머슴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열망하는 여수시민 여러분의 뜻을 겸손히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최 책임자로서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2022년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분열과 대립, 갈등과 반목의 싸움정치를 끝내고, 민생해결 정치, 서민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정치불신과 정치 언저리에 있는 부정부패의 어두운 그림자를 확실히 걷어 내겠습니다.
 깨끗하고 참신한 정치,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여수시민 한분 한분과 손잡고 눈 맞추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끊임 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을 돌보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둘째, 여수를 남해안 벨트의 중심도시,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역인재를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저는, 농민의 아들, 여수 진남시장 좌관 생선장사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여수상고 26회인 중학교 짝꿍 여동생과의 첫사랑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순수하고 꾸밈없고 한결 같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여수 촌놈입니다. 제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시민들이 행복하고, 우리 아들 딸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꿈꾸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여수! 더 위대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

- 재정 확대를 실현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고용기회를 늘리겠습니다.
- 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겠습니다.
- 남해안 중심도시, 도약하는 여수를 만들겠습니다.





- 순천시 해룡면 출생
- 성동초, 순천중, 광주일고
- 서울대 법대 졸업
- 전) 대전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 전)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 농협대학교 석좌교수
- 순천대학교 석좌교수
-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
- 전남 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
- 민주당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장

1 소병철

출마의 변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순천, 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산소가 있는 제 고향, 생각만 해도 늘 가슴이 뛰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천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우리 순천은 예로부터 팔마비의 청렴한 전통을 이어받아 인재를 키우는 교육의 도시, 조계산에서 삼산이수를 거쳐 순천만정원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입니다. 저 역시 내 고향 순천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안고 평생을 살아 왔습니다. 30년 가까이 검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지만 저는 변호사로서 받을 전관예우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 대신 인재의 도량 순천대학교와 농협대학교에서 교육자로서 6년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또한 제가 순천의 아들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해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들불처럼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뿌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것도 전남 제1의 도시인 이곳 순천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타는 목마름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을 갈망하는 우리 순천 시민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소병철이 반드시 해 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아주신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변화를 시민여러분께 반드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의 약속

-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도시 순천, 전남의 중심축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 젊은 인재들이 꿈을 펼치는 교육도시 순천, 순천의 잠재력을 순천의 발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효도시 순천, 존경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일자리가 넘치고 노동자 권익이 보장되는 경제도시 순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시민이 잘사는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 휴식과 관광의 즐거움을 주는 힐링도시 순천, 최고의 자연환경에서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광양중·순천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전)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구례지역위
법률인권위원장(인재영입)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법률인권특보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여순사건 재심 소송 대리인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소속 변호사



1 서동용

출마의 변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완성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번 선거는 '치킨집 망해도 또 치킨집 차려야 하는 경기 불황'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과 행복을 함께 도모할 섬세하고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지역은 각고의 노력에도 경제적 활력이 쉽게 되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늘지 않는 인구는 지키기에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안전사고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큰 병이 나면 여전히 광주로, 서울로 가야 하고 응급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다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다수가 우리 고장만의 일이 아니라 전남, 아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 지역 예산 따내기에만 급급한 정치풍토는 이제 바뀌야 합니다. 이제는 전라남도 전체

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국민 모두를 위해 국회의원들 간의 협력을 이끌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 넓은 인맥을 겸비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얻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 서동용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사회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펄펄 끓는 용광로와 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남도의 심장, 광양·곡성·구례의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군민과의 약속

- 여순10.19사건 특별법 제정
- 전남 동부 대학병원 설립 및 의료공공성 확대
- 임차인을 획기적으로 보호하도록 임대주택 관련 법령 개정
- 광양보건대 살리기



- 광주 인성고 졸업
-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1985)
- 전) 전국수세폐지 운동 주도(1987)
- 전) 전남도의원
- 전) 민선 3, 4기 나주시장
- 전) 19대 국회의원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대본부장
-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1 신정훈

출마의 변

이번 총선은 박근혜 세력을 청산하는 선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통해 ‘도로 새누리당’, ‘도로 박근혜당’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추종세력을 규합해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부활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혼란한 틈을 타 적폐세력들이 준동하며 대동단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아 주십시오. 지난 대선,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시대를 열었습니다. 촛불혁명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촛불민심의 첫 단추가 대선 승리였다면 이번 총선은 박근혜 세력을 청산하는 선거입니다. 참회없는 박근혜와 ‘도로 새누리당’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번 총선을 통해 출범할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여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나주·화순 지역민과 함께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나주·화순은 더 이상 전통적인 야당의 본고장에서 탈피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당당한 집권세력입니다.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 입안된 정책을 연결할 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부 반대가 있었던 한전공대 유치와 쌀 생산조정제를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순과 나주발전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강단 있는 저 신정훈이 화순과 나주. 그리고 농촌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시·군민과의 약속

- 한전공대 설립 및 에너지 신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
- 화순 생물의약품벨트 조성을 통한 ‘바이오 메디컬 허브’ 조성
-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이카(My car)택시’ 도입 추진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확대
- 농업·농촌의 활력 회복



- 제19·20대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만21세)
- 제35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
-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이개호

출마의 변

저의 변함없는 정치목표는 '가슴 따뜻한 정치'를 통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분한 성원에 힘입어 재선 국회의원으로, 또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뤄낸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단 한순간도 정치에 나섰던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가슴 속 따뜻한 온기를 품고 올바른 정치와 지역발전에 매진했습니다. 광주·전남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대선에서 외롭고 힘든 선거를 치러내며 광주·전남의 압승을 통한 문재인 정권 창출에 앞장섰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기능을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아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농림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4천만원 시대를 여는 등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농정을 펼쳐 잘사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완전한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사분오열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경제와 안보 모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

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 호남입니다. 민주화의 성지이자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인 호남이 다시금 맨 앞에 설 것입니다. 저 또한 광주·전남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정권 재창출과 하나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업현안 해결과 농촌경제 안정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 3선의원으로서 농업과 산업이 함께 공존하는 균형있는 산업구조를 만드는데 국회에서 뒷받침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

- 농업과 신산업이 함께 공존하는 균형있는 산업구조 마련
- 담양 '한국전통정원센터' 건립 및 국립기관 승격
- 한국형 정원의 저변확대와 관련 신산업 육성
- 청정 농·축·수산업 중심도시 함평 육성
- 빛그린산단 배후단지 조성 및 정주환경 구축
- 'e-모빌리티 산업'기반 추가 구축 및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 'e-모빌리티' 배후단지 활성화 및 테마파크 조성
-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장성) 및 기능 확대
- 숲과 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엘로시티' 장성 육성



- 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1987년 6월 항쟁 당시)
- 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부의장
- 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 전) 민주당 부대변인
- 전)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 전) 제19대 국회의원(고흥 보성 지역구)
- 전) 민주통합당 수석사무부총장
-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 전) 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전) 문재인 대선후보 전남공동선대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상임고문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1 김승남

출마의 변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고 더 이상 농민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업·농촌의 위기는 경쟁과 희생만 내세워 온 잘못된 농정 때문이었습니다. 농정철학과 기조의 근본적 변화는 공익적 가치실현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농업·농촌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실질적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Kuznets)는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붕괴되는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안과 예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국가 위상에 걸 맞는 농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초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저는 농어촌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농어촌에 관한 공익적 가치실현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서 바꿔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제반 사회개혁의 시금석이라는 사명감으로 혼신을 다해 뒷받침 해 나갈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는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고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직하고 책임 있는 길을 갈 것입니다.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민과의 약속

- 농어촌을 살리고 농어민의 복지를 위한 법안 및 제도 추진
 - ① 농어민의 가치 인정 및 농민의 권리 법적 보장(농어민기본소득 보장법 제정)
 - ② FTA수혜기업의 농어촌상생기금 참여 의무화로 개정(무역이득공유제법 개정)
 - ③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 해소(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 ④ WTO 개도국 지위포기 대응(농어업예산 비중 5% 이상 상향)
 - ⑤ 산림 및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추진
 - ⑥ 인구소멸위험 지역을 지원(지역인구활력특별법 제정)
- 전남 중남해안권을 새로운 관광 허브로 육성
- 잠재력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발전 전략 추진



- 해남화산중, 광주승의실고 졸업
- 해군사관학교 32기 졸업(78년 소위 임관)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2003)
- 해군 제1함대사령관(2007~2008)
- 해군 군수사령관(2011)
- 목포 해양대학교 초빙교수(2012~2015)
- 문재인 대통령후보 안보특보(진)
-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장,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1 윤재갑

출마의 변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안정시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개혁을 염원하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나라 바로 세우기에는 반대와 깎아내리기로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민생개혁과 지역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준비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윤재갑은 해남·완도·진도 군민 여러분과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세상! 농어민이 함께 행복한 세상! 도시와 농촌,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구분 없이 모두가 넉넉한 세상! 남과 북에 평화가 꽃 피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자랐고,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며 청춘을 바친 사람으로서 이 곳 해남·완도·진도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저 윤재갑은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를 만들겠습니다.
저 윤재갑은 해남·완도·진도가 행복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윤재갑은 해남·완도·진도가 세계로 가는 시작이 되게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저 윤재갑은 해남·완도·진도군민들의 자존심을 지켜가겠습니다.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켜냈던 호남정신을 해남·완도·진도에 입혀 군민 여러분들의 미래를 해남·완도·진도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군민과의 약속

- 산모들이 아이 낳고 양육하기 최고로 좋은 곳 산모토티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크는 곳 드림플레이스
- 글로벌 시대를 완벽히 준비하는 청소년
-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환경 조성
- 당당한 여성
- 힘 센 중년 만들기
-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곳 만들기
- 관광 & 일자리 창출
- 농수축산의 선진화
- 남도 발전을 위한 SOC 사업



- 전 민선 3, 4, 5기 무안군수(3선)
- 20대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년 연속)
- 전남도당 위원장
- 원내부대표
-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NGO학 박사)

1 서삼석

출마의 변

기분을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영암, 무안, 신안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어 매우 무거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의료보건인들과 지자체 관계자, 그리고 지역민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7월 13일 '서민과 농수축산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첫 등원 인사를 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채 2년이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남 광주 의원들 중 유일하게 본회의 100% 출석, 상임위 100% 출석일 만큼 기분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당과 농수축산인들께서도 노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을 비롯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8년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과 2019년 예결특위 위원을 역임하는 등 2년 연속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남 예산 7조원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습니다. 아직도 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짧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간이 아쉽지만 합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정권 재창출을 위해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민생을 우선하는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검찰개혁법 통과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개혁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발목잡기에 힘들었던 과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 민생정부로 성공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호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전남예산의 비약적 증가와 각종 정책반영의 결과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는 전남에서의 민주당 압승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 꼭 승리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

- '방역부' 와 '노인부' 신설, '농어업인 보건안전 전담부서 설치' 추진
- 인구절벽, 고령화 사회 대비 '농어촌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추진
-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공익형 수산직불제, 공익형임업직불제 도입
- 도서주민 여객선 공영제 강화, 물 부족 해소, 해양쓰레기 경감, 의료여건개선
- 여성농어업인 법적지위향상, 특화건강검진, 맞춤형 농기계, 지원센터 추진



**함평
군수**

- 함평 성남초, 함평중 졸업
- 함평농고(현 골프고) 졸업
-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함평빛그린산단 조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함평지역 부위원장

-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자문위원
- 백봉정치문화연구원 부원장
- 농업경영인(농업인 후계자)
- 전) 삼영영농 대표이사
- 전) 함평군 배드민턴협회장
- 전) 함평중학교 운영위원장



출마의 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평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기호 1번 이상익입니다.
함평에서 나고 함평에서 자란 함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함평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금 함평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9등으로 재정자립도가 꼴등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처참한 함평의 현실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함평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정치가들입니다. 지금 우리 함평의 정치가 그렇습니다. 함평 천지가 아닌 갈등 천지가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평군민 여러분!
저는 평생을 전문경영인으로 살아왔고, 사업적 성공도 이루었습니다.
지금 함평에는 경제를 아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행정도 경영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행정의 경험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행정은 군수가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 업무는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저 이상익은 함평군의 유능한 공직자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군수는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고, 예산을 집행 관리 감독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혁신경영을 통해 사업을 성공시켰던 저 이상익이 함평경제를 책임지겠습니다. 분열된 함평을 하나로 통합하고, 함평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상익

군민과의 약속

- 빛그린산단 배후단지 조성
- 친환경 관광 힐빙(힐링+웰빙)테마파크 조성
- 국립축산과학원 클러스터 조성 추진
- 농업재해보험 개선 농민부담 경감
-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 마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시재생뉴딜사업·어촌뉴딜사업 확대



여수·순천시의원, 함평군의원

권석환·오행숙·최종준 공천 확정

여수·순천시의회와 함평군의회 더불어민주당 4·15 재·보궐선거 후보자 경선 결과 권석환(44·행정사), 오행숙(60·전 순천시의원), 최종준(55·농업)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민준)는 21일 4·15 재·보선 후보 경선 결과 여수시의원(나선거구)

재·보선 후보자로 권석환 후보가 공천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순천시의원(사)과 함평군의원(가) 재·보선 후보자로는 오행숙, 최종준 후보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경선은 3곳 모두 100% 권리당원 여론조사로, 여수시의원 재·보선 후보는 3인 경선, 순천시의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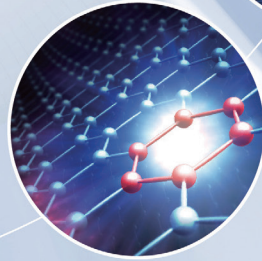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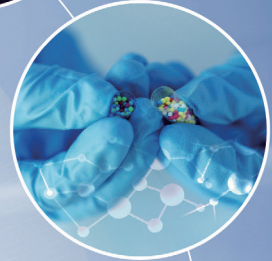
평군의원 경선은 2인 경선으로 각각 실시됐다.
권석환 후보는 도당 청년부위원장, 여수갑 청소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행숙 후보는 전 순천시의

원과 전 주암발전추진위 공동위원장을, 최종준 후보는 전 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장과 전 손불중학교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권이 최적지입니다

빛의 과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왜 호남권에 들어서야 할까요?

시너지효과 창출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한전공대와 연계한 기초과학 연구분야

관련 기업 집적

가속기 활용도가 높은 에너지, 신소재, 화학, 바이오, 자동차 기업 등

국가 균형발전

국가 첨단연구시설이 전무한 호남권에 구축 필요

방사광 가속기란?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키고, 이때 만들어진 빛(방사광)을 이용해 물질의 기본입자를 관찰하고 성질을 분석하는 최첨단 연구시설.

에너지, 반도체, 신소재, 바이오 신약개발, 화학, 나노기술 등 모든 과학분야에 활용 가능.



전라남도
JeollaNamdo